

원경왕후[元敬王后]

태종의 비, 형제들을 잃다

1365년(공민왕 14) ~ 1420년(세종 2)



1 개관

원경왕후는 1365년(공민왕 14)에 태어났다. 본관은 여흥(驪興)이고, 아버지는 민제(閔霽)이다. 남편인 태종 이방원(李芳遠)과의 슬하에 1385년(우왕 11)에 장녀 정순공주(貞順公主)를 출산한 이래 4남 4녀를 두었다. 고려 말에 세 아들을 연이어 잃었지만, 조선 건국 이후 1394년(태조 3)에 양녕대군(讓寧大君), 1396년(태조 5)에 효령대군(孝寧大君), 1397년(태조 6)에 충녕대군(忠寧大君, 世宗), 1405년(태종 5)에 성녕대군(誠寧大君)을 출산하였다.

조선이 건국된 해에 민씨는 정녕옹주(靖寧翁主)에 봉해졌고, 제2차 왕자의 난 이후 이방원이 세자가 되자 정빈(貞嬪)에 책봉되었다. 관련사료 1400년(정종 2) 태종이 즉위한 이후에는 정비(靜妃)에 봉해졌다. 관련사료 1418년(태종 18)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후에 후덕왕대비(厚德王大妃)의 존호를 받았으며, 1420년(세종 2)에 세상을 떠난 후 원경왕태후(元敬王太后)의 시호를 받았다. 원경왕후의 능은 헌릉(獻陵)이다. 쌍릉 형태로, 옆에는 1422년(세종 4)에 승하한 태종의 능이 있다.

2 남편 이방원의 집권을 돕다

1382년(우왕 8)에 태종 이방원과 혼인하였다 그때 이방원은 16세였고, 민씨는 18세였다.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태종의 신도비문에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다. 젊은 시절 이방원은 '세상을 구제하려는 뜻이 있어서' 집안일을 돌보지 않았던 반면, 민씨는 '집안의 경제생활과 육아'를 책임졌다고 한다. 관련사료 이는 내외관념에 충실한 전형적인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부인 민씨는 가정사 뿐 아니라 남편 이방원이 정치권력을 획득해 갔던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왕비에 책봉될 때의 책문(冊文)을 비롯하여 각종 기록에는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에 원경왕후가 무기와 갑옷을 내어서 태종을 도왔기 때문에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관련사료

우선 제1차 왕자의 난에서의 역할을 살펴보면, 부인 민씨의 역할은 매우 주도적이다. 일단 실록에는 왕자의 난이 정도전, 남은 등이 여러 왕자들을 제거할 모의를 꾸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서술되어 있다. 당시 왕자들은 부왕 태조의 병문을 위해 궁궐로 들어가 있었는데, 부인 민씨는 변란의 김새를 알아챈 후 자신의 병을 핑계로 남편 이방원을 궁궐 밖으로 불러냈다. 그리고 민무구, 민무질과 함께 병장기를 은밀하게 준비해놓고 군사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였다. 관련사료 왕자들이 거느린 시위패(侍衛牌)가 해산되어 군사력이 약화되었던 상황에서 부인 민씨는 무기를 준비함으로써 제1차 왕자의 난을 이방원 세력의 승리로 이끄는 동력을 제공했던 셈이다.

물론 당시 기록이 승자의 입장에서 서술되었음을 감안해야겠지만, 부인 민씨가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무기를 내어 이방원을 돕는 모습은 제2차 왕자의 난에서도 확인된다. 그녀는 동북형 이방간(李芳幹)과의 싸움에서 머뭇거리는 남편에게 직접 갑옷을 꺼내 입히며 독려했다.

관련사료

결국 남편 이방원은 조선의 세 번째 왕으로 즉위하였고, 자신도 왕비에 책봉되었다.

3 민무구, 민무질 옥사

원경왕후가 왕비의 지위에 오른 후 그녀의 가문은 왕실의 외척이 되었다. 그러나 태종은 외척의 권력에 대해서 경계하였고, 결국 두 차례의 옥사를 일으켰다. 왕비에게는 민무구, 민무질, 민무흠, 민무회 등의 네 명의 형제가 있었고, 이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다.

우선 1407년(태종 7)에 일어난 민무구, 민무질 옥사는 그들 형제가 세자에게 기대어 국가를 장악하려고 했고, 다른 왕자들을 제거하려 했다는 의혹이 발단이 되었다. 태종이 자신들을 보전해 주지 않을 것이라 다른 사람들에게 불만을 말하고 다녔다는 혐의도 있었다. 또한 그 전년도인 1406년(태종 6)에 태종이 갑작스럽게 세자 양녕대군에게 왕위를 넘겨주겠다고 선언했을 때 민무구 형제가 기뻐하다가 태종이 이를 철회하자 좋아하지 않는 표정을 내비쳤다는 논란이 되었다. 이후 민무구, 민무질은 권력 남용과 불충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약 3년간 탄핵을 받다가 결국 유배지인 제주도에서 자결하였다.

민무구, 민무질 옥사가 한참 논란이 일어났을 때 원경왕후는 민무질의 처를 궁중에 불러와서 논의하였다. 물론 탄핵된 자의 처를 몰래 불러들인 것이 논란이 되어 내관들이 처벌받았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태종은 부인을 뉘우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는 원경왕후가 민무구 등에 대해 ‘분이 나서 이를 갈며 절대로 구원하거나 보호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음을 밝히기도 했다. [관련사료](#) 하지만 점차 탄핵이 거세지고 민무구 등의 죄목도 늘어나면서 태종의 태도도 바뀌어 갔다. 민무구, 민무질이 죽고 나서 1411년(태종 11)에 태종은 원경왕후가 자신에게 불평을 품고 불손한 말을 여러 번 했다고도 언급하면서 왕후를 폐출하고 새 왕후를 들이겠다고 선언했다. [관련사료](#) 최종적으로 폐출에 이르지지는 않았지만, 태종과 원경왕후의 관계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4 민무휼, 민무회 옥사

1415년(태종 15)에는 민무휼, 민무회의 불충이 논란이 되었다. [관련사료](#) 여기에는 양녕대군과 충녕대군까지 관련이 되었다. 민무회가 염치용(廉致庸)의 노비소송 관련 판결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충녕대군에 말한 것이 발단이었다. 충녕대군은 이를 국왕에게 말했고, 결국 탄핵으로 불거졌다. [관련사료](#) 그런 와중에 양녕대군이 민씨 가문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듣고 민무회가 반발했고, 이를 민무휼이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까지 알려졌다. [관련사료](#) 역시 탄핵은 빚발쳤고, 그들의 죄목은 늘어만 갔다.

마침내 민무휼, 민무회도 자결하였고, 이로써 원경왕후는 네 형제를 모두 잃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태종은 원경왕후에게도 비난을 쏟아냈다. 태종은 13년 전인 1402년(태종 2)에 남편의 아이를 뱀 여종이 태동이 있자 왕후가 밖으로 내쳐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태종은 과거의 일을 들춰내면서 민씨 가문의 음흉함을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통해 외척이 경계해야 할 바를 주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관련사료](#)

5 원경왕후의 불행한 삶

이방원과 혼인하여 왕후의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지만, 원경왕후가 과연 행복했는지는 의문이다. 원경왕후는 후궁 문제, 민무구 형제의 죽음 등 각종 이유로 태종과 사이가 좋지 못했다. 우선 실록에는 원경왕후가 투기를 했다는 기록이 즉위 초부터 보인다. 원경왕후의 투기 때문에 태종이 경연청으로 나와 10여일 동안 거처하기도 했고, [관련사료](#) 후궁 권씨를 들이고자 했을 때에는 왕후가 단식까지 강행하자 태종은 간략한 절차만 거친 후에 권씨를 맞았다. [관련사료](#) 그리고 민무구 형제의 옥사나 양녕대군의 폐세자 때에도 원경왕후는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지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지는 못했다.

민무구를 비롯한 네 형제의 비극은 원경왕후에게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다. 수년간 형제들에 대한 탄핵이 이어졌다. 태종은 가끔 왕비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해주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는 비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게다가 1418년(태종 18)에는 막내 성녕대군이 14살의 나이에 홍역으로 세상을 떠났고, [관련사료](#) 그 후 상심하여 제대로 먹지도 않았다. [관련사료](#) 연이어 장남 양녕대군이 폐세자 되는 일

도 겪었다. [관련사료](#) 원경왕후는 태종의 폐세자 결정을 말렸지만, [관련사료](#) 세자 폐립(廢立)에 대한 조처는 매우 신속하게 행해졌다. 약 2개월 만에 태종은 세종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다.

원경왕후는 대비가 된 이후 한양을 떠난 양녕대군과는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관련사료](#) 걱정이 많아 여러 질병을 얻기도 했다. [관련사료](#) 결국 1420년(세종 2)에는 학질(虐疾)에 걸렸다. 아들 세종의 극진한 간호를 받았지만, 원경왕후는 왕비가 된 지 21년 만에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관련사료](#)